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백남준

강이연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



The
City
of
Nam June Paik
The Sea Fused
with The Sun

NAM JUNE PAIK

YIYUN KANG

GIJEONG GOO

HYEWON KWON

INHWA YEOM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오늘날 도시는 밤이나 낮이나 화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빛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건물 벽에 있는 큰 전자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비디오의 이미지와 소리를 담은 전자 신호가 화면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기도 해요.

예술가 백남준은 1972년에 “미래에는 사람들이 글이 아닌 비디오로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비디오로 남아서 쌓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비디오가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시는 예술가 백남준이 생각했던 ‘비디오가 만든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작가의 비디오 작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비디오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금을 새롭게 바라보고,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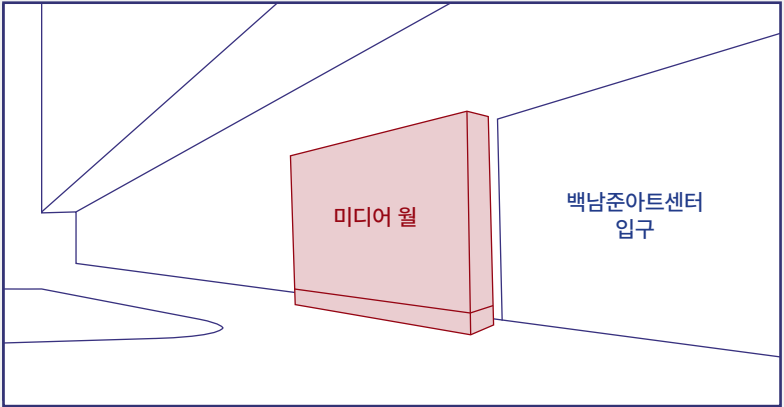
옛날에는 사람이 사건과 이야기를 말로 전하고, 글로 써서 남겼어요.
그래서 역사(history)라는 개념이 생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사건과 이야기를 비디오(video)나 이미지(image)로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history)대신 이미지리(imagery)와 비디오리(videory)를 남기게 될 거예요.

*백남준, 『빙햄튼에서의 편지』(1972)

미디어 월*의 위치

미디어 월은 백남준아트센터 입구 왼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가로 4.8미터(m), 세로 3미터(m) 크기의 미디어 월에서는 작가 5명의 비디오 작품 5개를 볼 수 있어요.

건물 밖에서 본 미디어 월의 위치



작품 재생 순서

백남준, 〈호랑이는 살아있다〉
Nam June Paik, *Tiger Lives*

강이연, 〈배니싱〉
Yiyun Kang, *Vanishing*

구기정, 〈투명성 시각 풍경〉
Gijeong Goo, *The Transparent Visual Scenes*

권혜원, 〈우로보로스 엔진〉
Hyewon Kwon, *Ouroboros Engine*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Inst.)〉
Inhwa Yeom, *Solarsonic Band (Inst.)*

*미디어 월 : 비디오 작품이 재생되는 큰 벽 화면.

〈호랑이는 살아있다〉

Tiger Lives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99년

만든 재료 비디오

재생 시간 45분 27초



〈호랑이는 살아있다〉는 2000년을 하루 앞둔 1999년 12월 31일, 임진각에서 공개된 백남준의 작품이에요. 임진각은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 비디오는 한국 케이비에스(KBS), 미국 에이비씨(ABC), 영국 비비씨(BBC)를 포함해 77개 나라에서 동시에 방송됐어요. 비디오에는 여러 장면이 이어져 나와요. 북한에서 만든 ‘호랑이, 사자의 대결’ 장면, 한국의 옛날 호랑이 그림, 미국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수 트레이시 레이폴드의 노래, 그리고 백남준이 직접 피아노로 ‘금강에 살으리랏다’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백남준의 작품 <삼원소>앞에서 트레이시 레이폴드와 백남준이 함께 각자의 곡을 힘껏 연주하며 끝나요.

백남준은 한국 사람을 호랑이에 비유했어요. 그는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랐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원래 45분짜리인 이 작품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뽑아 11분 56초로 짧게 편집해서 보여 줘요. 작품에 담긴 힘과 이야기를 함께 느껴 보세요.

〈배니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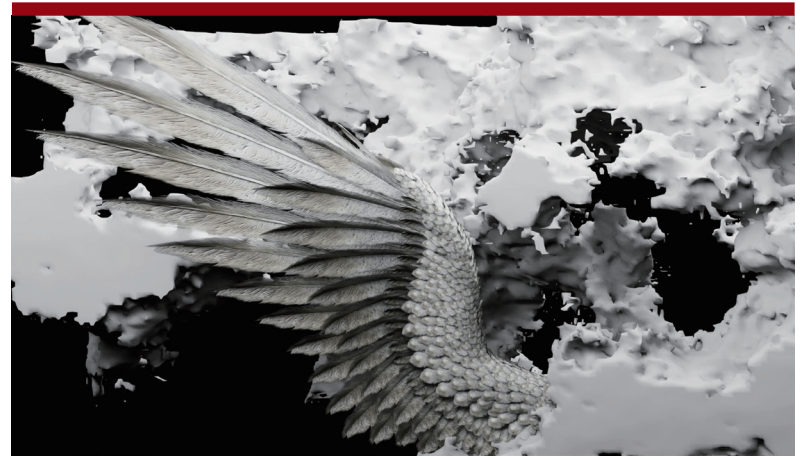
Vanishing

만든 사람 강이연

만든 때 2022년

만든 재료 비디오

재생 시간 1분 9초



〈배니싱〉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6번째 큰 멸종*에 관한 작품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5번의 큰 멸종은 작은 행성이
지구와 부딪치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등의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의 멸종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홀로세 멸종’, ‘인류세 대멸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인간 때문에 지구에 사는 동물, 식물의
약 75%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인간은 공장과 도시를 만들고, 자연의 자원을 함부로 쓰고,
숲과 바다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면서 다른 생명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됐고,
멸종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배니싱〉은 이런 상황을 비디오로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비디오에는 상상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는 지금의 멸종 현실이 담겨 있어요.

화석처럼 굳은 날개, 해골 모양으로 변한 생명체는
이미 사라졌거나, 지금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뜻해요.

*멸종 : 지구의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생물의 한 종류가 아예 없어지는 것.

〈투명성 시각 풍경〉

The Transparent Visual Scenes

만든 사람 구기정

만든 때 2025년

만든 재료 비디오

재생 시간 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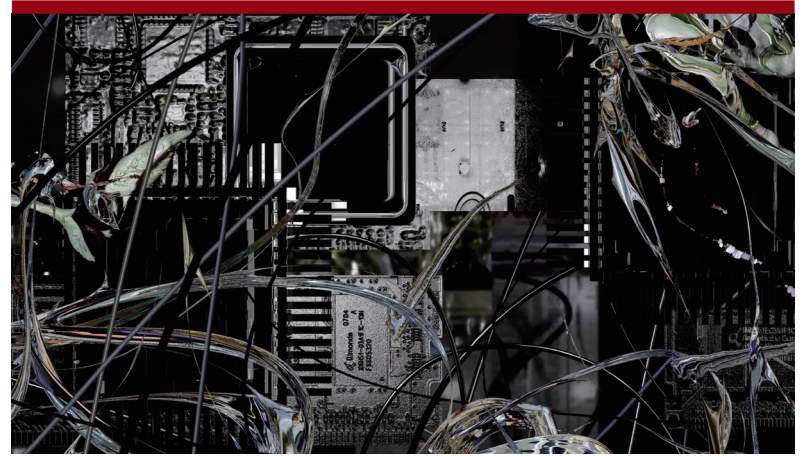
〈투명성 시각 풍경〉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투명성 렌더링 장치〉라는
작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작가는 ‘투명성’, 즉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보이는 특징을 떠올리며,
화면 속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이 작품은 아주 큰 벽에 빛을 비춰서 보여 줘요.
빛은 천천히 360도를 돌면서 움직이고,
그 속에서 작가가 만든 여러 이미지가 겹쳐서 나타나요.

이 작품은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과 기술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깨끗한 화면이 아니라,
복잡한 작품의 제작 과정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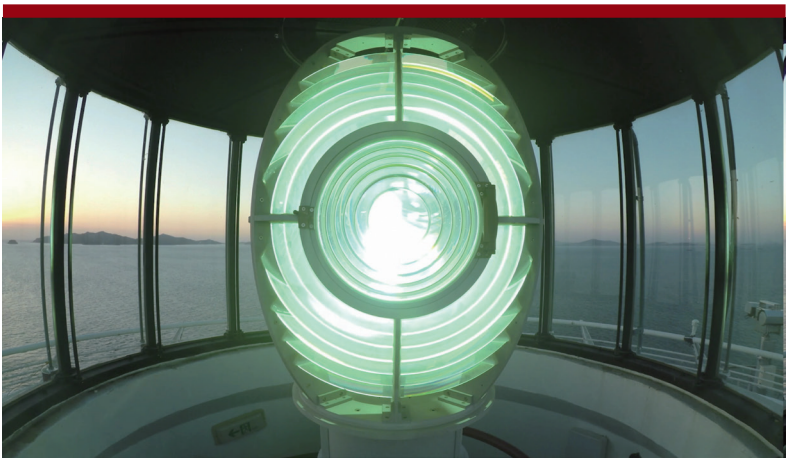
작가는 일부러 관객이 작품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인공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로보로스 엔진〉

Ouroboros Engine

만든 사람 권혜원
만든 때 2025년
만든 재료 비디오
재생 시간 7분 17초



〈우로보로스 엔진〉 속 세계는
시간이 앞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360도로 천천히 돌아가는 넓은 화면 속에는
계속 반복되어 돌고 도는 세계가 나타나요.

화면에는 영화 필름처럼 멈춘 이미지가 이어지기도 하고,
옛날 영화 기계인 [조이트로프](#)*처럼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며 움직일 때도 있어요.

작품을 보는 사람은 이 화면 안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도는 뱀 [우로보로스](#)*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경험해요.

마치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운 이미지를 다시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통해 또다시 배우며
끝없는 반복의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아 보여요.

*조이트로프 : 동근 통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물건. 통을 돌리면 그림이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우로보로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자기 꼬리를 먹으면서 동시에 꼬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뜻이 있다.

<솔라소닉 밴드(Inst.)>

Solarsonic Band(Inst.)

만든 사람 염인화
만든 때 2025년
만든 재료 비디오
재생 시간 8분 15초



<솔라소닉 밴드(Inst.)>는 <솔라소닉 밴드>와 같은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솔라소닉 밴드(Inst.)>는 기후 위기* 때문에 아직 공연하지 못한 악기들의 연주를 비디오로 보여 줘요.

‘인스트(Inst.)’는 ‘인스트루멘탈(Instrumental)’을 줄인 말이에요.
악기 소리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뜻해요.

작가는 ‘사람이 연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주하는 악기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했어요.
비디오 속 악기들은 태양열, 번개, 미세먼지 같은 기후*의 변화에 반응하며 소리를 내요.

이 작품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
마치 기후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연습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해요.

*기후 위기 : 지구의 날씨가 나빠져서 사람과 자연에 위험을 주는 상황.
*기후 : 온도, 비, 눈, 바람 등의 공기 상태.

작가 소개

백남준

백남준은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독특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백남준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과 홍콩에서 학교를 다녔고,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미학을 공부했어요.
그 후 독일로 가서 철학과 현대 음악을 배우며
여러 예술가와 함께 원래 공연하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공연을 많이 했어요.

백남준은 1963년에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전시를 열며, 텔레비전으로 만든 작품을 처음 공개했어요.
그는 이 전시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196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하여 작업했죠.

그는 비디오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해서,
수많은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1980년대에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 같은 텔레비전
생방송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이 작품은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를 연결하려는 도전이었어요.

백남준은 레이저 기술까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혔지만,
1990년대 중반에 뇌졸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200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위 예술 : 예술 안에 전통적인 규칙을 깨고 새롭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강이연

강이연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맞다/틀리다처럼 단순히 둘로만 나누어 보는 방식을
비판하는 예술가예요.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발전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 예술을 이용해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려고 해요.

강이연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 목소리들이 함께 힘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강이연의 예술 활동

하는 일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경험디자인 랩(XD Lab) 감독

개인 전시

《인탱글먼트》(신세계 더 헤리티지 뮤지엄, 2025)
《엔트로포즈》(PKM 갤러리, 2021)

단체 전시

《패시지 오브 워터》(COP28 UAE, 두바이, 2023)
《온리 인 더 다크》(아트 온 더 마트, 시카고, 2023)
제3회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제주현대미술관, 2022)
《커넥트, BTS》(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0)
《캐스팅》(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2016)

구기정

구기정은 사진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공간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예술가예요.
그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이파리, 돌 같은
자연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에 관심이 많아요.

구기정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를
돋보기를 들여다보듯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모습을 **3차원 렌더링***을 이용해 작품으로 만들어요.

구기정의 예술 활동

개인 전시

《루트 0》(서호미술관, 2024)
《초과된 풍경》(광화문 광장, 2023)
《콘트롤로지》(홀 원, 2022)

단체 전시

《세르펜티 인피니토》(푸트라 서울, 2025)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서울시립미술관, 2024)
《몰타 비엔날레: 고립-혼종의 풍경》(몰타 국립 고고학 박물관, 2024)
《다섯 발자국 숲》(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024)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3)
《더치 디자인 위크》(스트레이프티, 아인트호벤, 2022)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아르코미술관, 2021)

***3차원 렌더링** : 컴퓨터로 입체적인 그림이나 풍경을 만들어내는 기술.

권혜원

권혜원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예술가예요.
그는 사회적인 의미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비디오 설치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최근에는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도구나 방법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권혜원의 예술 활동

받은 상

2019년 제 19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2011년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즈(Bloomberg New Contemporaries)

개인 전시

《우연작동》(타이페이 현대미술관, 2023)
《행성 극장》(송은, 2023)
《보이지 않는 영사기사를 위한 매뉴얼》(탈영역우정국, 2018)

단체 전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024)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3)
《아쿠아 천국》(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

염인화

염인화는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기술과
공연 예술을 합쳐서 ‘3D 퍼포머티브 장치-환경’이라는
독특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의 작품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기계,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존재들의
행동과 표현을 담아내는 무대처럼 쓰여요.
또, **소수자***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쓰이고자 해요.

염인화의 예술 활동

하는 일

예술과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바이오브(<https://biove.io>) 회사를 만들

받은 상

2024년 제6회 VH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LG 아트센터 & LG전자 후원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상

참여 전시

《제6회 VH 어워드》(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바젤 전자예술의 집 외, 2025)
언폴드엑스(Unfold X) 2024 《2084: 스페이스 오디세이》
(문화역서울284, 2024)
《넥스트코드》(대전시립미술관, 2024)
《행성공명》(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
《프로젝트 해시태그》(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2)

*확장 현실(XR) : 실제 세상과 디지털 환경을 합쳐서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소수자 : 적은 수의 사람.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뜻한다.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전시 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쉬는 날

매주 월요일마다 쉬어요.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 = ∞ |
NAM JUNE PAIK ART CENTER

이 전시는 용인특례시의 2025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열립니다.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미디어 월에서,
그 다음에는 용인포은아트홀 야외에서 전시가 계속됩니다.

백남준아트센터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Nam June Paik Art Center

10 Paiknamjun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68 Korea

 njp.ggcf.kr  031-201-8500